

# 이천시의회 의정소식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형의회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이천시의회 공식채널

이천시의회는 유튜브 및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다채로운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발간사** ..... 4

**(특집) 인터뷰** ..... 6

- 김하식 의원
- 박노희 의원
- 박준하 의원
- 송옥란 의원

**소통 간담회** ..... 14

-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

**연구 용역** ..... 16

- 이천시 지역화폐분석연구회

**의정 뉴스** ..... 18

**회기 운영** ..... 24

- 제254회 제1차 정례회
- 제255회 임시회
- 의안 처리

**행정사무감사** ..... 31

- 김재현 의원
- 김재국 의원
- 임진모 의원
- 서학원 의원
- 박노희 의원
- 김하식 의원
- 박준하 의원
- 송옥란 의원

**5분 자유발언** ..... 46

- 김하식 의원
- 임진모 의원
- 김재국 의원
- 서학원 의원

**특별한 만남** ..... 54

- 이천시 청소년의회 멘토-멘티 결연식
- 제1기 의정모니터단 역량강화 교육
- 이천시청소년연합의회 모의의회 체험

**의회 안내** ..... 59

- 회기 일정
- 방청/견학 신청



제2025-2호

- 발행일 : 2025년 10월
- 발행인 : 이천시의회 의장
- 제작기간 : 2025. 5. 1.~2025. 8. 31.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의회)

- 전화 : 031) 644-2532
- 이메일 : council.icheon@gmail.com
- 홈페이지 : https://council.icheon.go.kr

제30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



#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형의회





##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 한 분, 한 분의 가정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8대 이천시의회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구석구석 변화와 요구를 세심하게 살피며 민생 현장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5월, 이천시의회는 의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모니터단’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시민 참여와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혔습니다. 시민 대표로 선발된 13명의 의정모니터단은 전문교육을 거쳐, 각종 정책 제언과 민원 전달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7명을 새로 위촉하였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를 위임해 의회 윤리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시민의 신뢰받는 청렴 의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열린 의회, 투명한 의정을 실현해 내겠다는 이천시의회 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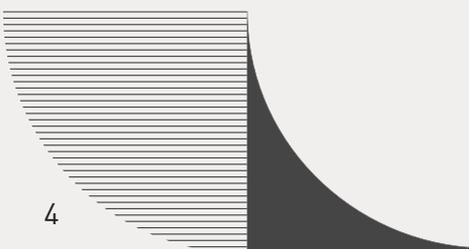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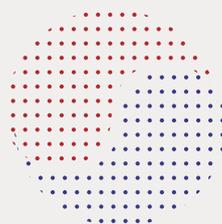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주요 조례안과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예산 이월 문제 개선, 푼버스 운영 실태 점검, 읍·면 노선 확대와 편의성 증진 등 현안에 대한 72건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실효성 있는 지역 변화에 힘썼습니다.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불편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복합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과 조례 심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천시의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과, 시민 모두의 권익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발맞추어, 8월에는 ‘이천시 지역화폐분석연구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이천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침체된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이천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천시의회는 ‘시민 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형의회’라는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깊이 듣고, 그것이 곧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신뢰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천시의회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늘 시민 곁에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이천시의회위원장 **박명서**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심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실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듣고 공감하고 해결하겠습

그동안 소홀해 왔던 입법 활동과 지역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 '현장 중

니다. 의회 차원에서 제가 추진해 왔던 시민단체와의 소통간담회를 제 나름대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로 변화시켜 시민의 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지역적 거리가 먼 남부권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김경희 시장님은 장호원에 임시 시장실을 개소하시고 남부권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인 이천 남부권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입법활동과 지역 민원 해결에 중점, 소통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김하식 의원**

특히 부발 역세권 개발과 남부권에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호원의 특산물인 복숭아와 설성면의 딸기 등 특화 작물을 더욱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 발의하신 조례나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반기 의장을 맡다 보니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해 조례를 그리 많이 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점 이천시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의원 이 된 최근 들어서야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대표적인 조례로는 **첫째, 작년 12월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여 효행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편향성 및 차별, 오류,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저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이천시 모가 분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으며 울면고등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도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처음으로 ‘의장배 파크골프대회’와 ‘초중고등학교 배드민턴대회’를 만들어 어르신들부터 학생들까지 폭넓은 참여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의정 철학 또는 삶의 좌우명이 있다면?

저는 삶에 있어 ‘소통’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없습니다. 솔하게 민원인을 만나

뵙고 고질 민원을 해결해 왔음에도 저희 시의원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만 합니다.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민과 저와의 거리는 좁히고 시민과 저와의 소통은 넓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울곧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3선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추호도 흔들림없이 시민과의 소통에 임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이 저를 불러주시면 새벽이라도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례'와 '정책'을 만드는 일에 그동안 저는 많이 힘써 왔습니다.

시의원이 하는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

앞으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키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불편, 소외된 목소리 하나까지 귀 기울여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러한 신념을 지켜 나갈 생각입니다.

## 사람이 우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드는 의정 펼칠 것

 **박노희 의원**

### 발의하신 조례나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째,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과 함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양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일부 개정했습니다. 입양아동의 입학 지원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 것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입양아동도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이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등을 발주할 때 이천시 기업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이 앞장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니다.

셋째, 시민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정책이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황톳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과 함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

넷째,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실내 파크골프를 제안했고 처음으로 읍면에 개장되었습니다. 이천도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제안했고, 김경희 시장이 이를 적극 수용해 읍면 남부복지관에 ‘파크골프 스크린’이 설치돼 어르신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년의 삶도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통해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는 의회운영 분야에서 4건, 자치행정 분야에서 8건, 산업건설 분야에서 5건 등 총 17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시 자치 재정권 강화와 세입 구조 다변화, 보은·밀실 인사 관행을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 문제, 어린이 동요드림센터 건립 타당성 재검토 등 시민의 혈세가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집요하게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의정 철학 또는 삶의 좌우명이 있다면?

‘참! 관참은 시의원’이 되자는 초심을 지금껏 지켜가며 매 순간 임해 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살피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참! 관참은 시의원’이라는 말을 시민 여러분들께 들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천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하입니다. 제8대 의회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켜 보니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없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

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공자원과 예산이 특정 기득권층에 집중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역시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예산 배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방자치와 공공정책을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혜택받는 사회 만들어야



**박준하 의원**

###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천시의회로서 제가 마주했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치권력과 예산이 지역 기득권자들과 유착하여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칼 마르크스가 지적한 ‘물질적 기반이 의식을 결정한다’는 모순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인허가권, 예산권,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며, 마치 ‘생산수단을 장악한 지배계급’처럼 시민들을 길들이고 장악하려 합니다. 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치권력이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며,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총액이 재단되는 모습은 지금까지 이어져온 비정상적인 정경유착의 행태와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예산 35%가 지역 유지들의 이익집단에 유동되며, 이는 전체 지방재정의 12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라는 연구 결과는 우리 지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출처: 한국지방정부학회 안광현). 우리 지역도 절대로 청렴하다 단정할 수 없으며, 공공연히 자행되어 온 반복된 비리와 청탁은 공공의 역할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정경유착의 사적 이익 실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투표율 50~60%의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이 대의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모습은 시민 주권의 공백 상태를 드러냅니다. 마르크스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권력 독점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기득권의 감시체계가 코를 들이미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자치의 향기가 발산될 수 없다’는 각오로 이천시 집행부와 이천시의회 정치권력 오용과 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예산 투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여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혜택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의정 철학 또는 삶의 좌우명이 있다면?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저는 지방자치와 공공정책이 특정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혜택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저는 공공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특정 계층에 집중된 예산 사용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예산제와 외부 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는 권력이 시민과 분리될 때 발생하는 소외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저는 지역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특히 남부권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좌우명인 ‘천천히 가더라도 뒤로 가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부패와 기득권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을 다짐하며,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단숨히 정치적 이상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천시민분들께서 신뢰와 희망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천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서희' 선생의 소중한 유산을 도시 브랜딩하여 도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이천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는 단순히 산업, 물리적 공간을 넘어, 고유한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지로 시민의 정신을 바탕으로 역사, 문화 등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통과 화합 그리고 평화의 가치가 깃든 서희 선생을

## 서희선생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도시 브랜딩 필요, 이천을 국제 외교 도시로

 **송옥란 의원**

이천시의 도시 인물 브랜드로 선정하여 이천시민의 진정한 정신이 되고 그 정신이 공감과 연대를 통해 구심점과 자긍심이 되어 차별화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이천시는 반드시 글로벌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천시는 어떤 도시입니까?”라는 질문에 “이천시민의 진정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라고 당당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천시를 국제적 외교 중심도시로 조성하여 세수 확보는 물론, 이천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천시는 국제적 외교의 달인 서희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도시이며 국제적 외교활동의 핵심인 지리적 위치와 교통의 편리성, 접근 용이성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비를 확보하여 서희의 분향인 이천에 서희국제컨벤션센터를 설립한다면 외교를 중심으로 경제, 고용, 신산업, 관광,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발전을 통해 이천시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속 가능한 국제적 외교 도시 이천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천시는 어떤 도시입니까?”라는 질문에 “이천시민의 진정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국제적 외교 도시입니다.”라고 당당히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발의하신 조례나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총 78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배려는 물론, 지역사회의 변화와

조례는 시대의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가치, 비전을 반영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이기 때

발전을 반영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의 위상과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장애인, 청소년, 여성,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총 23건의 정책과 조례를 제·개정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환경을 반영하여, 안전, 산업, 탄소중립, 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6건의 정책과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신산업, IT, 정보, 안전, 재난, 재정 등 경제, 문화, 사회적 발전을 위한 선제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총 19건의 정책과 조례를 제·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지역, 시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유익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정 철학 또는 삶의 좌우명이 있다면?

자 핵심 윤리로 삼아 늘 성찰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은지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시각에서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우선하며, 진정한 공감과 배려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이천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삶의 철학은 '측은지심(惻隱之心)'입니다. 타인을 위하고 배려하는 선한 마음의 근본이며, 어짐의 극치인 측은지심을 저의 기본 덕목이

#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의 소통 간담회



**종일반 방과 후 체험비 지원 필요**  
**인가 정원 수 조정하면 쾌적한 교육 환경제공과**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상생 가능**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5월 2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간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김재현, 김재국, 임진모 의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어린이집연합회는

- ▲ 오후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상생 정책
- ▲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대비 환경개선
- ▲ 인가정원수조정

등 주요 현안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특히 연합회 측은 “오후 시간대 돌봄 및 특성화 활동(미술, 음악 등)을 위한 교재비·강사료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종일반 프로그램은 1일 8~10시간 운영돼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방과 후 체험비 예산 부족으로 교육적 접근이 미흡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로 민간시설의 경영악화가 심해져 180여 곳이던 시설이 현재 120곳으로 줄었다”며 보육시설 간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과 정원 수 조정 등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있다”며, “민간시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과 인가 정원 수 조정 시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기준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의 날’은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참여형 정책을 발굴하는 이천시의회 대표 플랫폼으로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의 간담회는 2023년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었으며, 초기 논의되었던 장기근속수당 증액 및 원장 수당 지원 건이 실제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지역화폐 지역경제 순환 **해법** 모색에 나선다

## 이천시 지역화폐분석연구회 연구 용역 착수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지역화폐분석 연구회(회장 임진모)'가 8월 7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임진모 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 6명과 연구용역을 맡은 처음헌법연구소(소장 조유진) 관계자가 참석해 과업 개요, 추진 방향,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연구용역은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이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의 주요 수단으로 확산되었으나 실제 이천시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천시만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지역화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연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입니다.

박명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지역화폐가 이천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보호에 일정 역할을 해 왔으나, 그 실질적 파급력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정책효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연구 용역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이천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현장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이천시 지역화폐 정책 및 사용현황, 예산, 업종별 효과, 소비 증대 및 고용 유발 등 지역 경제 영향, 디지털화에 따른 플랫폼 고도화, 정책 발행·일반 발행의 효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 만족도와 의견 등 다양한 측면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또한 이천시 인구구조, 주요 산업 및 소



비 패턴, 인센티브 차등 설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선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임진모 회장은 “이천시 지역화폐가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복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해법을 찾고 시민과 소상공인, 행정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은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이천시와 시의회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운영의 제도적, 실무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6월 20일,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재해취약시설과 사방사업 등 다양한 예방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해 김재국, 임진모 의원과 안전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갈산 배수펌프장, 대월면 사방댐 1개소, 서경저수지 등을 직접 방문해 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의원들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지속적인 예찰과 사전 대비를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천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배수로 및 하천 준설,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민간과 연계한 인명 대피 훈련 등 다양한 사전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과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운동장에서 피어난 우정과 화합” 이천시의회 의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6월 27일 이천종합운동장 C보조구장에서 ‘제2회 이천시의회 의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장년층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개인전, 단체전으로 진행된 이번 경기는 14개 분회에서 27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김영우 이천시체육회장, 봉재인 이천시그라운드골프협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개인전 1위에는 유화준(증포동), 2위에는 최우현(중리동), 3위에는 이태용(백사면) 선수가 각각 차지했고 단체전에서는 백사면 분회가 우승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2위와 3위에는 대월면과 마장면 분회가 각각 순위에 올랐습니다.

박명서 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라운드골프는 성별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 속에 우정과 화합의 의미를 더하며,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제8대 이천시의회 개원 3주년, 배식봉사 통해 지역사회와 동행

2022년 7월 1일 개원한 이천시의회가 어느덧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형의회’를 실천해 오고 있는 이천시의회는 별도의 의례적인 기념행사 없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로 개원식을 대신했습니다.

개원일을 하루 앞서 진행된 배식 봉사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복지관을 찾은 지역주민과 장애인 등 150여 명에게 따뜻한 온정이 담긴 점심 식사를 배식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정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봉사활동 이후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복지관 관계자들과 자리를 마련해 시설 운영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명서 의장은 “제8대 의회 개원 3주년을 의례적인 행사 대신 배식 봉사로 진행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열린 의정, 따뜻한 의회를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배식 봉사 활동은 지난 설 명절에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동행을 이어가며,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의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 가평군 수해복구 동참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7월 29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을 방문해 수재민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가평군 조종면 일대는 기습 폭우로 주택 침수, 주민 고립, 도로 마비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김재현 부의장, 김재국 의원, 임진모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10여 명은 폭염 경보 속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잔해를 치우고, 이재민들에게 소정의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특히 도움이 절실한 민가를 차례로 방문해 수해로 훼손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식기를 세척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에 함께 했다”며, “이천시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모두의 정성과 협력이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 이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 7명 위원 위촉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8월 14일 의장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을 가졌습니다. 이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차 회의를 열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과 2025년 의원 행동강령 교육 계획(안) 보고 건을 처리해 초대 위원장으로 이현숙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2조제에 근거해 설치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3년간 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 승인 사항 ▲행동강령 교육·상담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박명서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청렴한 의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이번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의정 활동 전반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 제3회 이천시의회 의장배 배드민턴 대회 성료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8월 30일 대교눈높이배드민턴장에서 「제3회 이천시의회 의장배 중고등학교 배드민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천시 청소년들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회 현장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김재현, 김재국, 서학원, 임진모, 김하식), 박종근 부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남기환 이천시배드민턴협회장이 함께해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경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13개 팀, 총 136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활기찬 분위기 속 치열한 경합을 펼쳤으며 그 결과 중등부 남녀부에서는 마장중학교가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고, 고등부에서는 이현고(남자부), 마장고(여자부)가 각각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대회로 서로의 땀과 노력이 빛나는 순간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무대가 되었길 바란다”며,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난해 지역 학생대표 간담회에서 배드민턴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종목으로 꼽힌 이후, 청소년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소통의 결실’로 매년 의장배 대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 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6

# 회기 운영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55회 임시회

의안 처리



제254회

###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종료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진행된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과 규칙안 1건, 의견청취 및 보고의 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현)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 반복되는 예산 이월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 집행 개선, 독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고령 이용자가 많은 읍·면 지역

노선 확대와 편의성 개선 등의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72건(시정 11건, 처리 33건, 건의 28건)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희)에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9억 1,838만 7천원에 대한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출되어야 함에도 소송비용액, 과태료 및 이천과학고 관련 비용 등 일부 예비비 지출은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부적절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재현  
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노희  
위원장

박명서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에 애쓰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재국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의 절차와 조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방청을 제한할 때 고지 의무,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규정,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하 의원 대표발의

이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횟수를 제한하여 한 사람이 다수 위원회를 참여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하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하고 원만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진모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에 따른 간이저장고를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송옥란 의원 대표발의

이천시민이 수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물놀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 대표발의

이천시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안

송옥란 의원 대표발의

상권 매니저가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활동과 상인조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현 의원 대표발의

보조금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범위와 격차를 줄이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현 의원 대표발의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및 지원율을 조정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실현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현 의원 대표발의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재현 의원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및 방치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를 적극 개선하고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 신설 및 관련 문구를 일부 정비했습니다.

##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안

서학원 의원 대표발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 확산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희망하우징 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공동체의 상생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했습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7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25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이천시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유치’ (서학원 의원), ‘효양산 은선사의 향토유산 지정 및 효양산 일대 문화관광 개발의 필요성’ (김하식 의원), ‘이천시 경지정리 농지의 탄력적 개발 허용과 균형 있는 농지 정책 전환’ (임진모 의원) 등 이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7건, 예산안 1건, 의견 청취 2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채택되었으며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현)에서는 경기도 추경에 따라 추가·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

점 심의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불편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기정예산 대비 약 650억 원 증액한 총예산 규모 1조 6,587억 3,300만 원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김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2회 추경예산안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추경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어, 시민에게 새로운 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박명서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민생 현안, 지역사회 발전, 미래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예산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며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시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변화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위: 천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 원안의결

구 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 감(%)
합 계	1,593,729,636	1,658,723,312	64,993,676(4.08)
일반 회계	1,363,441,145	1,427,470,565	64,029,420(4.69)
공기업 특별회계	116,846,935	116,846,935	0(0.00)
기타 특별회계	113,441,556	114,405,812	964,256(0.85)

## 의원발의 조례안

###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종류·방법·시기를 명확히 정비하고, 포상에 따른 부상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김재국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 대표발의

최근 스토킹 범죄와 함께 교제 폭력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제 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 신속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송옥란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의 불안 해소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 대표발의

상위법령 인용 사항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임진모 의원 대표발의

이천시가 유치·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이천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

송옥란 의원 대표발의

이천시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시설 정비 등 스쿨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서학원 의원 대표발의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서학원 의원 대표발의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쇄지원단 운영, 장비 지원, 교육·홍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와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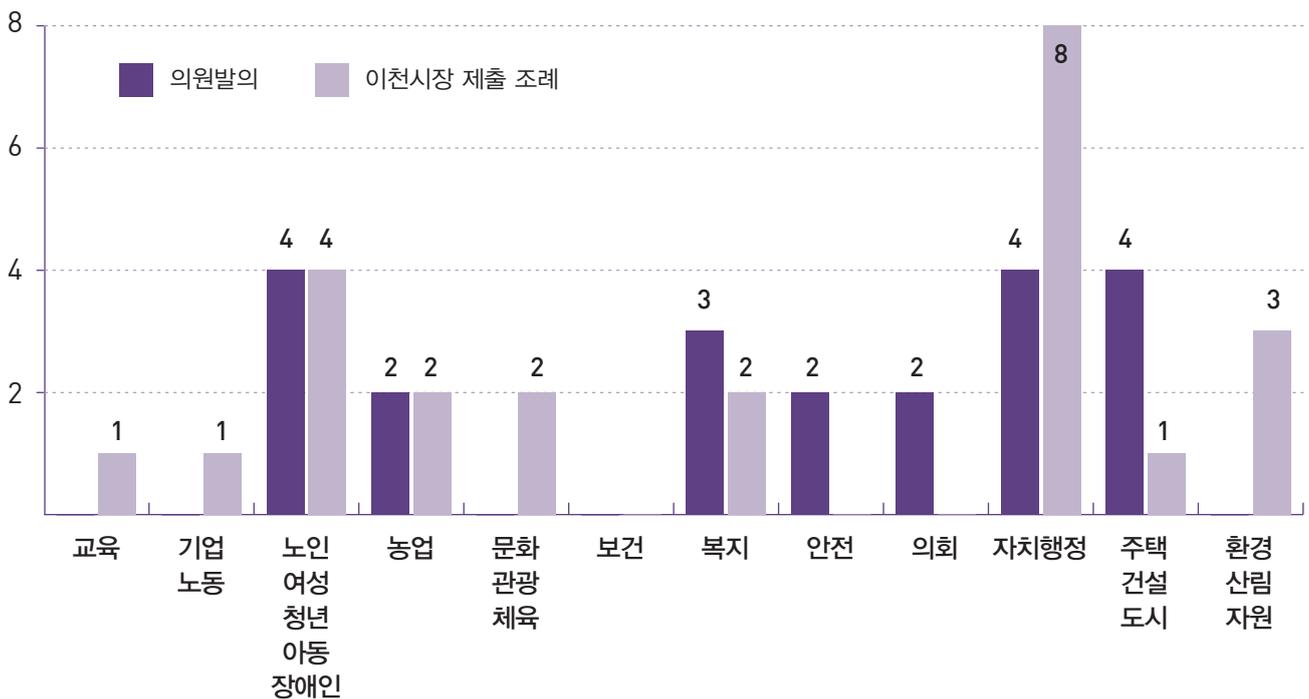


**의안 처리 현황** (2025. 5. 1.~8. 31.)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보류	비고 (기타)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총계	75	75	68	1	0	0	1	4	
예산 및 결산	2	2	2	0	0	0	0	0	
중요동의	8	8	8	0	0	0	0	0	
조례안	소계	44	43	1	0	0	0	0	
	의원	20	20	0	0	0	0	0	
	위원회	0	0	0	0	0	0	0	
	시장	24	24	23	1	0	0	0	
동의안	7	6	5	0	0	0	1	0	
승인안	2	2	2	0	0	0	0	0	
결의안	2	2	2	0	0	0	0	0	
건의안	0	0	0	0	0	0	0	0	
규칙안	1	1	1	0	0	0	0	0	
의견청취	4	4	4	0	0	0	0	0	
청원	0	0	0	0	0	0	0	0	
기타 안건	5	1	1	0	0	0	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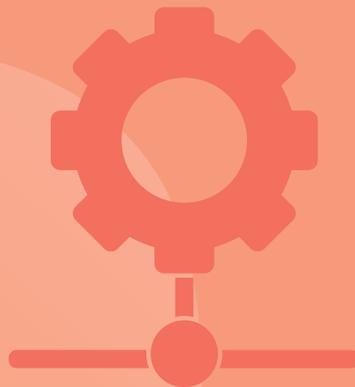
**조례/규칙안 분야별 처리 현황** (2025. 5. 1.~8. 31.)



07

# 행정 사무 감사

- ◉ 김재현 의원   ◉ 서학원 의원   ◉ 박준하 의원
- ◉ 김재국 의원   ◉ 박노희 의원   ◉ 송옥란 의원
- ◉ 임진모 의원   ◉ 김하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천시의회는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헌)를 열고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확인과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을 통해 **72건(시정 11건, 처리 33건, 건의 28건)**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 ✓ 김재헌 의원



#### ✓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단축 방안 강구 (시정 / 회계과)

창전동 행정복지센터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2024년 11월부터 인근 백화점 건물을 임시청사로 임대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건물 철거는 물론 어떠한 공사 착수

실적이 없는 상태임. 계획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임시청사 임대료가 매달 2,860만 원씩 지출되어, 지난 7개월간 약 2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은 장기화되고 있음.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며, 공종별로 향후 세부 일정 계획을 작성하고 공사 단축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람. 또한,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 예산 이월 반복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개선 (처리 / 기획예산담당관)

최근 수년간 당해 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예산 이월은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예산 비효율 사례이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왜곡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과다불용이나 이월 등으로 한정된 재원이 적기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필요성, 타당성, 실현성, 산출내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월 예산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함.

#### ✓ 반복적인 도로 굴착공사 개선을 위한 공사 정보 공유 체계 강화 (처리 / 도로관리과)

최근 몇 년간 동일한 도로 구간에 반복적으로 굴착공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반복 굴착은 고쳐지지 않는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으며, 예산 낭비, 도로 수명 단축, 도시 미관 저해 및 교통 혼잡 유발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부서 간 공사 정보 공유체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하길 바람.

####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철저 (처리 / 기획예산담당관)

#### ✓ 남천공원 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처리 / 공원녹지과)

#### ✓ 소규모주택 지원 예산 증액 (처리 / 주택과)

#### ✓ 하천 준설의 필요성 (처리 / 건설과)

#### ✓ 분수대오거리 신호 체계 재점검 (처리 / 도로관리과)

#### ✓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 관리 철저 및 온라인 홍보 방안 강구 (처리 / 이천문화재단)

#### ✓ 종리택지지구 관련 환경 개선 (건의 / 미래도시과)

#### ✓ 중앙통 문화의거리 이용 고객을 위한 화장실 개설 요청 (건의 / 미래도시과)

☑ 김재국 의원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효성 제고 (처리/전 부서)

이천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조에 따라 단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3년 이상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평가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지속 여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점수에 따라 사업 유지, 예산 삭감,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조차 별다른 조치 없이 유지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실질적 성과가 없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도 다수 확인되며 일회성 또는 무용지물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함. 앞으로는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반영 및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관리 부적정 (시정/전 부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그러나 이천시에서 2024~2025년 동안 시행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사

업의 정산 일자가 4월 이후인 게 확인되었음. 특히 보조사업 종료 시점이 12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서 제출과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됨. 이에 각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기한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이와 같은 관리 체계의 개선은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 이천 제4수변공원 내 조형물 관리 (처리 / 이천문화재단)

이천 제4수변공원에 설치된 조형물이 현재 심하게 녹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원의 전반적인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형물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이에 녹슨 조형물에 대한 도색 및 정비 방안 마련 또는 이설 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길 요청함. 또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작가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유지·보수·이전·철거 등의 권한을 시가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협약 등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향후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관련 권한을 시에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 ✓ 천연수세미 재배시설 및 가공시설 조성사업의 실효성 부족 및 예산낭비 (처리 / 농업정책과)

### ✓ 임진모 의원



✓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 및 주차요금 1일 최대요금 상한 폐지 (건의 / 교통정책과)

남천공원 지하에 건립된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은 남천상점이 한복판에 위치하여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 시설로,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8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임. 건립취지 및 위치적 특성을 감안하면,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은 남천상점이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및 기여가 확대되어야 함. 남천상점이 점포를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 편리성이 커질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장기주차 방지 및 남천상점이 이용객 주차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천상가 주차장의 1일 최대요금 상한을 폐지하기 바람.

✓ 공공시설(목욕탕)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운영 개선 (시정 / 설성면·울면)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설성·울면 목욕탕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해당 시설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해당지역 주민과 타 지역 이용자(이천시민 외) 간 요금의 차이가 없는 점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용료 수입을 세입예산(울면)에 편성하지 않는 점도 시정이 되어야 함.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목욕탕)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천시민과 이천시민이 아닌 사람 간 목욕탕 이용요금 조정 및 무료·할인 대상자 통일 등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사용료 수입을 세입예산에 매년 반영토록 시정하기 바람.

✓ 푯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울면 고정노선 이용편의 제고 (건의 / 교통정책과)

푯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고 이용자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불편과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음. 일례로 장호원 지역에서는 푯버스 대기시간이 2시간이나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용자가 많은 만큼 사업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더욱 필요할 것임. 푯버스 배차 프로그램 및 인력 운용 등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푯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울면에서 고정노선을 운행하는 1대의 푯버스에 대해서도 고령 이용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고정노선임에도 전화 또는 앱으로 예약(호출)을 해야 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함. 고령 이용자가 많은 울면 고정노선 푯버스 이용방식을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청함.

- ✓ 규격에 맞지 않은 공인 정비 및 글자체 통일 필요 (시정 / 자치행정과)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의 의회 보고 실시 (시정 / 도시과)
- ✓ 예산 집중투입을 통한 도로공사 적기완료 추진 (건의 / 건설과)

## 서학원 의원



### ✓ 서면심사 운영 부적정 (처리 / 공원녹지과)

2023년도 도시공원위원회 및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코로나19를 사유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는 방역지침이 이미 완화된 상황으로 대면 회의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처리한 것은 단순 행정 편의에 따른 부적절한 운영으로 판단됨. 특히 해당 위원회들은 시민 생활환경과 안전에 밀접한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위원회 본래의 취지인 책임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서면심사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면 회의를 통해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관련 지침 정비가 필요함.

### ✓ 부서 존치 타당성 및 인력 배치 재검토 필요 (처리 / 첨단전략산업과)

이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4년에 투자유치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착수하였음. 그러나 2024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년간 기업유치는 0건이며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실적은 협약 3건이며 모두 계획단계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임. 이러한 실적 수준은 도로관리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등 재난대응·공공기반 인프라 분야에서 폭우·폭설 등 민원 대응에 고강도 근무를 수행하는 부서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내부 행정조직 간 균형성과 인력 효율성 차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비록 투자유치 업무는 외부 기업의 전략, 민간 변수, 중앙정책 방향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고 성과 도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순 협약 건수만으로 성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신설된 조직이 1년 이상 실질적이며 최소한의 구체적인 실적 없이 운영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조직 존치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읍·면지역으로 독버스 노선 확대 (건의 / 교통정책과)

이천시는 2023년 12월부터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일명 독버스를 개통해 운영하고 있음. 독버스는 콜택시와 시내버스의 장점을 접목하여 고정노선 없이 수요자(승객)의 호출에 따라 운행되며 이용 요금이 일반버스 요금과 같고 이동 동선이 유사한 다수의 수요자를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임. 독버스의 개통으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이 증진되었고 현재까지 큰 호응을 받고 있음. 하지만 독버스는 이천 시내권역과 장호원읍, 율면 지역에서만 운행되어 교통 소외지역인 그 외 읍·면의 주민은 독버스의 편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큰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넓은 지역에 드문드문 있는 배차간격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으로 독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교통 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람.

- ✓ 읍·면·동 소규모 SOC사업의 사전 의견수렴체계 강화 (처리 / 읍·면·동)
- ✓ 약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 (건의 / 민원여권과)
- ✓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 부실 (시정 / 시민교육지원과)
- ✓ 도암삼거리 일원 배수로 정비 필요 (처리 / 도로관리과)
- ✓ 신둔면 장동3리 통과도로 내 무인교통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건의 / 도로관리과)
- ✓ 신둔면 장동3리 마을회관 진입로 정비 (처리 / 도로관리과)

✓ 박노희 의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부적정 (처리 / 건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에 따르면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천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자체 시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물이 부족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인의 신고에 따라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주기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정비 활동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도시 및 자연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과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관리·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함.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조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건의함.

-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 등 법령상 이행 사항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정비 시스템 마련
-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관련 인력 운영 계획 수립
-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신고 및 대응 체계 마련

#### ✓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업무 선정에 관한 투명성 및 선정 절차 준수 (건의 / 자원순환과)

이천시는 2023년 9월 말 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공급 등 관련 대행업무를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한 바 있음. 그러나 한 달 후인 10월 말 해당 부서는 예산심의 협의 등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 위탁 계획을 보류하였음. 이후 2024년 1월에는 위탁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아닌 기존 업체가 대행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2025년 1월 이천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해당 기존 업체에 다시 위탁하였고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13년째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단에 대행업무를 요청하게 된 사유가 불명확하며 공익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공단 위탁이 무산된 사유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함. 특히 공단이라는 시 산하기관과의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 위탁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적 개선을 건의함.**

- 향후 동일 업무 위탁 시 공정한 공개 절차 및 시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과의 충분한 협의 진행
- 현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공익적 목적 수행이 가능한 기관(시설관리공단 등)으로의 위탁 전환 방안 검토

**✓ 이천시청소년재단(동요역사관) 전국 동요제 행사비용 과다책정 및 동요제 운영 개선 (처리/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청소년재단의 동요역사관은 이천시를 ‘동요의 메카’ 로 알리기 위해 전국 단위 동요대회를 추진 중임. 동요역사관의 2025년 예산은 약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천 5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국 동요제 예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약 40%를 차지함.

먼저 과도한 일회성 예산 집행 문제임. 전국 동요제 상금이 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타 시군과 비교해 과도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신규 사업임에도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되었다는 우려가 있음.

둘째, ‘병아리 창작동요제’ 의 명칭을 2025년부터 ‘병아리 동요제’ 로 변경하고 창작 중심 기조를 전환한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함. 대안으로 제시된 ‘한글사랑 나라사랑 창작동요제’ 는 여주시 등 타 지역과 혼동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천 서희 창작동요제’, ‘이천 꿈나무 동요제’ 등 이천의 지역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전국 중심의 행사 운영 방식도 문제임. 현재 대회는 전국 단위 유치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천 지역 아동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부족함. 동요센터가 건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대회만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함.**

- 예산 편성의 적정성 재검토
  - 전국대회 상금 등 과도한 일회성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됨.
- 병아리 창작동요제 명칭 변경의 재고
  - ‘병아리 창작동요제’ 명칭 변경은 14년 전통을 고려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사유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어야 함. 특히 지역 정체성과 ‘이천’ 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 중심 명칭으로 재설정 요구함.
- 전국대회 중심의 운영 방식 개선
  - 전국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아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창작 활동과 지역문화 육성을 연계해야 하며 동요센터의 실효성 확보 후 전국대회 추진을 고려해야 함.

## ✓ 김하식 의원



### ✓ 가로수 관리 부적정 시정 (시정 / 공원녹지과)

부발역에서 죽당교 회전교차로를 지나 국도42호선에 접하는 구간에 식재된 가로수(미산딸나무) 중 절반 이상이 6월 임에도 불구하고 이파리도 나지 않은 상태로 가로수로써의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증일 사거리에서 신진리 사거리 구간에 식재되었던 가로수가 이식되었는데 이식 장소 파악이 안 되는 등 관리가 미흡함. 이천시 전 구역에 대한 가로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로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식재한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고사한 나무는 제거 또는 재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바람.

### ✓ 준공식 행사 과도한 비용 지출 개선 (처리/전 부서)

도로, 주차장, 청사 등 이천시가 시행한 사업의 완료 등을 기념 및 홍보하기 위해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29건의 준공식 등 행사를 개최하였음. 평균 약 9,300천 원이 사용되었고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된 행사에는 35,200천 원이 쓰였음. 과도한 진행인력 동원 및 이벤트, 화려한 무대 설치 등이 비용 발생의 주된 요인이며, 자급이 가능한 물품까지도 비용을 주고 사용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로 개선이 필요함. 과도하고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고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는 방향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자체인력과 물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행사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국가 및 경기도 관리 도로·하천에서 발생하는 민원 적극 대응 (처리 / 건설과·도로관리과)

국도 및 국지도, 국가하천 등 이천시 관내에 있지만 이천시가 관할하지 않는 도로나 하천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음.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말고 제도개선, 기관방문, 자체해결방안 강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리상황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민원업무 체계를 구축·확립하기 바람.

✓ 안흥~산촌 간 도로 가로수 식재 (건의 / 공원녹지과)

✓ 박준하 의원



✓ 이천문화원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 문화예술과)

2024년 이천문화원 결산서 중 학술세미나 포스터 제작비가 개인에게 지출되고 있는 건이 확인됨.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채주(거래처)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에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와 지출 결의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 보조금 집행은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인쇄소, 디자인사 등)에 지급하여 세금계산서 등 공식 증빙을 받아야 하며, 개인(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예외 및 불가피한 경우는 만약 포스터 제작을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에게 맡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단순 개인(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이마저도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상 부득이한 경우(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발급

이 불가한 산간오지 등)로 제한됨. 이러한 사안을 참고하여 시정하시기 바람.

#### ✓ 중앙로 불법 증축 건물 점검 (시정 / 건축과)

2025년 6월 10일 행정사무감사 2일차 합동현지확인 중 중앙로 업사이클 문화예술거리 현장을 방문하여 통행로 공사현황을 점검하던 중 불법 증축으로 보이는 건축물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관련 법령 위반 및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건축물의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면적을 늘릴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철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도로법 및 도로점용허가 관련 인도 등 공공도로 공간을 무단 점유해 영업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 위반에 해당하며, 단속 및 과태료, 강제철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사 작업물 등의 위반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또한 불법적으로 외부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역시 도시미관을 해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는지도 지도 점검 바람.

#### ✓ 설성면 수상행정복지센터 용역 부적정 (처리 / 회계과)

주민 건의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성면 수상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 3월 21일 M연구원에 용역비 18,646,500원이 집행되며 연구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됨. 그러나 본 용역이 타당한 추진 사유와 함께 시민 다수의 의견 및 동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 또한 용역을 수행한 M연구원은 사업분야가 교육서비스업으로 주로 노조 교육, 정책 연구, 출판 전문으로 하는 기관임. 이러한 교육서비스업 기반의 노조 교육 및 정책 연구, 출판 기업이 해당 행정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듦. 이에 따라 용역 추진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의 타당성, 시민 의견 수렴 절차의 적법성 등을 재감사할 것을 건의함.

#### ✓ 천연수세미 지원사업 부적정 (시정 / 농업정책과)

####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 부적정 (시정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 이천문화원 행사운영비 사용 중 식대 기준 검토 (처리 / 문화예술과)

#### ✓ 이천문화원 사업비 사무용품 지출 적합성 부적정 (처리 / 문화예술과)

#### ✓ 방송매체 선정 기준 마련 (건의 / 홍보담당관)

#### ✓ 이천사랑 지역화폐 정책발행액 확대 검토 (건의 / 일자리정책과)

#### ✓ 이천문화원 원고 작성자 자격 적합성 검토 (건의 / 문화예술과)

#### ✓ 장수수당 관리책임자 지정 (건의 / 노인장애인과)

#### ✓ 사전 재해예방 대책 철저 (건의 / 안전총괄과)

####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스마트 대응체계 도입 (건의 / 차량등록과)

- ✓ 집단 환경 민원 대응을 위한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 / 환경보호과)
- ✓ 흡연 단속 운영 강화 (건의 / 건강증진과)
- ✓ 청소년 휴카페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이천시청소년재단)

 송옥란 의원



✓ 법률홈닥터 공백 발생 시 행정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처리 / 감사법무담당관)

이천시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0년 이후 매년 780건(2020년), 595건(2021년), 738건(2022년) 등 높은 이용 실적을 기록함. 이는 법률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발히 이용해 왔다는 방증임. 그러나 2023년 11월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자진 퇴사로 인해 2024년도 상담 건수는 118건으로 급감하였고 현재까지 공백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법률적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변호사 총원 지원에 대비한 대체 상담 인력 확보, 상담창구의 중단 없는 운영방안 등 행정적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기 바람.

✓ 분수대오거리 미디어파사드의 활용 다변화 및 수익형 콘텐츠 도입 (건의 / 홍보담당관)

2024년도에 추진된 이천시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사업은 약 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도시경관 사업으로 도심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포함하여 시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이미지 개선과 랜드마크 조성

을 목표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현재 설치된 미디어파사드가 단순 반복적인 광고 노출에만 머물러 이천시만의 정체성을 살린 콘텐츠 부족 및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분수대오거리 미디어파사드를 단순 광고 매체가 아닌 이천시의 역사·문화·축제·예술 등 테마형 콘텐츠를 연계한 도시홍보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민간 기업을 통한 수익형 광고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핵심 공간에 조성된 미디어파사드가 도시브랜드 강화와 수익 창출이라는 이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운영 전환이 필요함.

#### ✓ 민방위 대피시설 미지정 지역 추가 지정 및 장애인 대피환경 마련 (처리 / 안전총괄과)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보·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임. 그러나 이천시의 읍·면·동별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따르면, 14개 읍·면·동 중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은 지정된 민방위 대피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확인됨. 법정 필수사항은 아니나, 최근 자연재난과 위기상황 증가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대한 조속한 대피시설 지정 및 확보가 필요함.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민방위 대피시설 및 지진 옥외 대피장소에 대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취약한 곳은 단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이 예외 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방위 체계 구축을 기대함.

- ✓ 제로베이스예산기법을 활용한 예산편성의 구조적 점검 필요 (건의 / 기획예산담당관)
- ✓ 읍·면·동 감사 반복지적 방지를 위한 유기적 관리 강화 (처리 / 감사법무담당관)
- ✓ 반려민원 원인분석 및 사전 예방대책 강구 (건의 / 민원여권과)
- ✓ 체육회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강화 (처리 / 체육진흥과)
- ✓ 시립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상생 대책 필요 (건의 / 노인장애인과)
-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시 사회적 고립 방지 설계 필요 (건의 / 청년아동과)
- ✓ 복하천 제4수변공원 물놀이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확대 필요 (처리 / 공원녹지과)
- ✓ 이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조적 문제 진단 필요 (처리 / 도시과)
- ✓ 구시~송라 간 도로 조속한 완공 및 위험구간 우선 정비 필요 (처리 / 건설과)
- ✓ 사고이월 사유 부적정 및 감사자료 부실 작성 (처리 / 도로관리과)
- ✓ 다산고 정문 앞 통학시간대 교통안전 미비에 따른 개선 요청 (건의 / 도로관리과)
- ✓ 상수도 요금 체납액 급증에 따른 체납관리체계 개선 (처리 / 수도과)
- ✓ 쌀과 반도체의 연계성 강화 필요 (건의 / 첨단전략산업과, 농업진흥과)
- ✓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전략 강구 (건의 / 미래도시과)
- ✓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률 향상 제고 필요 (처리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문화재단)
- ✓ 채용 결격사유 규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건의 / 이천시청소년재단)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 6. 2.

## 부발변전소 증설문제 해결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의원 김하식입니다.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하고 있는 변전소 증설에 대하여 부발읍 주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까지 구성하며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부발변전소 부지 내에 15만 5천 볼트 변전소를 증설하겠다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발읍 무촌리를 가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위험천만해 보이는 변압기와 철탑들이 주민들 거주지 바로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부발읍 주민들은 전자파 위험과 소음, 개발 부진 등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 감수로 살아왔습니다. 전기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가정, 공장, 학교 등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변전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임을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변전소 증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성과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옥내형 변전소가 아니라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에게 변전소는 여전히 기피 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발읍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위험과 불안 속에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변전소 인근에서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본 의원은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들의 제안에 대하여 불가 방침으로 일관하지 말고 열린 마음과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기업활동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환경 조성은 꼭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의 투자가 많아 지역과 주민들의 삶이 좋아집니다. 꼭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며, 기피 시설인 부발변전소 증설 문제를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낸다면 이천시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고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활기를 띠 것입니다. 옥내형 변전소를 지하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상 공간을 공원 및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을 한국전력과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변전소가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인식개선과 함께 변전소가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마을의 중심시설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울의 수색변전소 역시 기존 옥외형에서 지하형으로 개선하고 그 위에 한전지사 사옥과 주민체육시설, 주상복합빌딩 조성을 계획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천시와 부발읍 주민,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하는 대화 채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형 변전소 설치 및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에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십년 동안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온 부발읍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변전소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7. 23.]  
효양산 은선사, 향토유산 지정 및 문화관광 자원화 필요



## 김하식 의원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하고 있는  
변전소 증설에 대하여  
부발읍 주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 6. 2.

## 지역화폐사업 재고 및 소상공인 직접지원 사업 강화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 모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겹습니다. 이천시는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 보고회'를 3월, 4월에 연이어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마련한 민생대책이 시민과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과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상황 관리로 실행력을 높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합니다.

**오늘 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이천사랑 지역화폐에 대한 견해와 이천시의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이 간접지원 형태인 지역화폐보다 직접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진작을 통하여 동네 상점이나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천시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와 소비지원금을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업비는 576억 원이며, 시비는 365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 지역화폐 예산을 따져보면 도비 포함해서 120억 원 정도가 되며, 이중 시비는 약 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천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8,431개소로 가맹점 등록이 가

능한 사업체의 88% 수준입니다. 이 의미는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화폐 사용자들은 의도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점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본인의 취향이나 선호 등 선택과 필요에 따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한 곳이 지역화폐가 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불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화폐 충전 시 이용자에게 주는 6~10%의 인센티브는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주는 효과만 있을 뿐 가맹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 이상을 특정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지원 형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별도의 기금을 통한 성장 기반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확대, 카드 수수료와 배달·택배비 지원, 디지털기기 도입지원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에 직접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분명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숙고와 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7. 17.] 예산 집중투입을 통한 도로공사 적기완료 추진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7. 23.] 경지정리된 농지의 개발 가능성 확대를 위한 제안



## 임진모 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직접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0.

##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반영 협조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김 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 재국입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이천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 제도에 대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의사진행 절차가 아닙니다. 이천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입니다. 제8대 이천시의회에서는 총 41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회기 당 평균 1.5명의 의원이 시민 불편 사항 및 시정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준초고층 아파트의 화재 시 민·관·군 합동훈련의 필요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지원의 필요성', '인구유입 정책의 필요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집행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언이 끝난 뒤에도 실질적인 검토와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좋은 제안이 시기를 놓치고 무의미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응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재현 부의장님께서 수변공원 명칭을 '이섭대천 공원'으로 명명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추진상황을 공유하거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섭대천'은 우리 이천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이름입니다. 획일적인 '수변공원'이 아닌 이천만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

된 이름으로 바꾸자는 정당한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지난 5월 10일 이천시 이원회가 복하천 수변공원에 '이섭대천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는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회도 함께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수변공원의 명칭 또한 '이섭대천 공원'으로 변경하여 이섭대천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후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단순한 형식 개선이 아니라 집행부가 시민의 뜻을 책임 있게 수용하고 실천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사항과 추진상황을 시의회와 신속히 공유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김 경희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회의 규칙 개정 사항을 모든 부서에 철저히 안내하고,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5분 자유발언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시민의 목소리가 이천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국 의원

“  
‘5분 자유발언’ 제도에 대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6. 20.

## 이천시 과학고 유치 이후 행정 구조와 실행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천과학고 유치와 관련된 행정적 실행 여건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한 우려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유치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이천 교육의 전환점’, ‘미래 인재 육성 기반 확보’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시장님의 성과 홍보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천시민들은 현재 이천과학고 진행상황, 위치, 준공시기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실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모계획서에 학교 부지는 이천시가 확보하고, 건축은 이천시의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사무인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천시는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전출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지 확보와 건축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은 폐교 우선 활용 방침과 유휴부지 우선 정책 등을 이유로 신규 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설사 교육청이 부지 매입을 수용하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 방안이 어렵게 되자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부지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행자 선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인허가 협의, 교육청 기준 총족 등 여러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천시는 2025년 3월 기준 미분양 주택 1,610가구로 경기도 내 미분양 3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자의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천시가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핵심 결정권은 교육청과 중앙부처에 있어 실행 가능성은 전혀 담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공모에 선정되었고, 시민의 혈세 1,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이행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구조 속에서 학교 대상지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천시의 현실입니다. 대대적인 축하와 홍보가 이어졌지만 정작 실무 담당자들은 법령과 제도 사이에 갇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 아 이러한 행정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천시에 서 과학고 유치가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묻고 싶습니다. 공모 신청 단계에서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오로지 공적과 업적을 위해 공모하고, 유치가 확정되자 뒷수습은 실무자들이 떠안는 이러한 상황에서 ‘묻지마 유치’ 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시는 최근 ‘이천과학고 유치’, ‘공장부지 30만 제곱미터 조성 가능’ 등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체 없는 ‘공적 뽐내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 홍보에만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천과학고 유치 및 시장님의 공적에 대한 비판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교육인프라 사업에 대한 절차와 실현 가능성을 시민의 대표로서 이천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검토할 책임이 있기에 발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대책 없는 유치 선언에서 벗어나 과학고 유치의 현황과 법적 제약을 고려한 실행 전략 및 법령에 기반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7. 23.]  
이천의 미래, 경기국제공항 유치의 필요성



## 서학원 의원

“

철저한 검토 없이 공적과 업적을 위해  
공모하고, 유치가 확정되자 뒷수습은  
실무자들이 떠안는 ‘묻지마 유치’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09

# 특별한 만남

이천시 청소년 의원과 멘토-멘티 결연식

제1기 의정모니터단 역량강화 교육

이천시 청소년 연합의회, 방문학습 및 모의의회 체험





## 이천시 청소년 의원과 멘토-멘티 결연식

이천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지역 정책 수립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천시 청소년의회 멘토-멘티 결연식’이 6월 19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결연식에는 이천시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한 청소년의원 10명과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구문경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들과 제5대 이천시 청소년의원 간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의회는 정은선 의장과 임해인 부의장이 대표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짐하는 청소년헌장을 낭독한 후 준비한 정책제안(▲이천시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및 활성화 ▲부모님과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만들기 ▲초등학생 바른말 실천하기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박물관 만들기 ▲자전거 도로 개설 ▲버스 정류장 냉방의자 ▲이천시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청소년 카페 개설 ▲청소년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습비 지원 ▲안전한 버스정류장 환경 조성)에 대해 각 지역구별 멘토 시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멘토링을 경험했습니다.

박명서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의 주역으로서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1년간 청소년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발한 정책 토론과 입법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천시 청소년의회는 2019년 제정된 「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 설립된 기구로 이천시 청소년을 대표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교육·복지·안전환경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이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결연식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와 청소년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강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멘토-멘티 결연식





## 제1기 의정모니터단 역량강화 교육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제1기 의정모니터단과의 정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7월 10일 오전 11시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의정모니터 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는 시의원들과 의정모니터 단원 9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모니터단 임원 선출 및 활동 방향 ▲시의원과 의정모니터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정담회 ▲전문강사 초청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날, 이천시의회는 의회 입법 고문인 최민수 교수를 특별 강사로 초청해, 실제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례와 방법,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시민참여의 중요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의정모니터단 단원들은 의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의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천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13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2027년 4월까지 2년간 의정활동 모니터링, 정책 건의, 민원사항 전달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정 발전의 한 축을 맡게 됩니다.





## 이천시 청소년 연합의회, 방문학습 및 모의의회 체험

이천시 청소년 연합의회(나비)가 '2025년 방문학습 및 청소년 모의의회'를 8월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나비'는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 그리고 이천시 청소년재단(서희청소년문화센터)이 공동 추진해 자치·의회·참여 3개 분과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의원 단체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청소년 연합의원 34명, 교육청 장학사 등 총 43명이 참여했고 34명의 학생들은 1일 시의원으로 변신해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질의, 토의, 표결 등 실제 회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의원들은 직접 제작한 발표 자료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현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경청했습니다. 하예인 의원의 '1일 청소년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

적인 모의의회가 진행됐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혜민 의원이 '청소년 흡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김지우 의원이 제안한 '교내 휴대폰 전면금지'와 김강민 의원이 발의한 'VR 교통사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상정돼, 열띤 찬반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의원들은 평소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 체험은 청소년들이 지방 자치의 운영 과정을 몸소 경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고민에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회기 일정

회차	회의기간	주요안건	비고
제258회 [제2차 정례회]	12. 1.(월) ~ 12. 23.(화) [23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li> <li>○ 시정질문(시정답변)</li> <li>○ 추경예산안(제출 시)</li> <li>○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안 제출: 11. 21일한</li> <li>· 예산안 의결: 12. 21일한</li> </ul>



### 방청/견학 문의 및 신청

**Tel** 031) 644-2537  
**Fax** 031) 631-2981  
**E-mail** aksskffo@korea.kr

※ 본회의장의 방청석 규모(20석)가 협소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 마감합니다.

방청견학 신청확인



나선거구

마장면, 창전동, 중리동



부의장  
김재현  
(국민의힘)



의원  
박노희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신문면, 백사면, 관고동, 증포동



의장  
박명서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국민의힘)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장호원읍, 부발읍, 대월면,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 울면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국민의힘)



의원  
김하식  
(국민의힘)



의원  
박준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송옥란  
(국민의힘)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의회) Tel 031)644-2532 Fax 031)631-2980  
<https://council.icheon.go.kr>